

동성애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할까?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퇴폐, 문란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4년 삭제되기 전까지 청소년보호법에는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말할 때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듯이 동성 간의 사랑도 총체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애정관계입니다. 🏳️

동성애는 doing(행위)가 아닌 being(존재)입니다. 행위는 존재에 수반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이런 오해와 편견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리사회적 문제를 낳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 청소년의 성을 인정하는 성교육이 아닌 편견과 차별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해가 됩니다. 🏳️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합시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 동인련

동성애자인권연대

lgbtpride.or.kr

lgbtpride@empal.com

070-7592-9984

이 유인물은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개미스폰서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옹크리지 말고 힘내!!



청소년 성소수자,
무지개 봄꽃을 피우다

"우리
얘기 좀
들어볼래?"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극실험
www.lgbtpride.or.kr

청소년 성소수자?

성소수자는 여성동성애자(레즈비언), 남성동성애자(게이), 양성애자(바이섹슈얼), 무성애자(에이섹슈얼) 트랜스젠더/트랜스섹슈얼, 간성(인터섹슈얼) 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살거나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당연히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존재합니다. 🏳️

미성숙? 일시적 혼란? 이탈?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성적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성소수자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생각, 동성애는 문란하고 비정상이라는 편견 때문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성적체성을 부정하곤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적체성을 부정하기보다는 한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이라서, 성소수자라서 받는 이중의 고통

학교 : 편견, 이반검열과 괴롭힘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대부분 학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교과서에서 사랑과 결혼은 이성애자들만의 것,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자라는 편견을 드러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동성애자라고 알려졌거나 의심받는 학생들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때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교육은 또래집단 내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괴롭힘과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성소수자 학생을 의심하고 따돌리거나 소문을 퍼트리기도 합니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

두 사람을 기억하며



고등학교 3학년, 18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육우당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자신이 믿었던 종교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세상의 편견에 맞서 열심히 싸웠던 멋진 친구였습니다. 커밍아웃 후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민하다 결국 죽음을 선택한 20대 청년 오세인. 장례식에서조차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독여주었던 육우당과 오세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별로 남아 성소수자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건 우리가 아니라 이 사회야!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응크리지 말고 힘내!!

우울증과 자살

사회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성적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며 불안감과 우울, 소외감을 쉽게 느낍니다. 때문에 우울증을 앓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시도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성이 이성애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참여대상의 57퍼센트가 욕설 등 언어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며 30퍼센트 가까이 신체적인 폭력의 위협과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보건국은 28퍼센트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괴롭힘, 폭력, 소외감을 벗어나기 위해 중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